

경찰 박봉으로 이웃돕기 20여년

신행현장

'자비의 포들이' 이승언 경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심정은,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더 잘 헤아리는 모양이다.

광주 동부경찰서 지산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이승언(48, 전남경찰청 경찰학교 회원) 경사의 자비행은 이런 생각을 듣게 하기에 충분하다. 말단 경찰 월급으로 20여 년째 남몰래 불우한 이웃을 도와 온 그의 훈훈한 마음도리가 그렇다는 것이다.

이 경사가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경찰에 투신한지 1년여 만인 1981년. 당시 전남경찰청 제 7기동대에 근무하던 이 경사는 귀가 도중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나 할머니(당시 68세)를 발견하면서부터다.

나 할머니는 허름한 셋방에 홀로 살며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이 경사는 매달 쌀 20kg과 연탄 30장을 사드리며 할머니의 살림을 챙기는 '자식 노릇'을 했다. 당시 이 경사의 어머니(87년 작고)는 입부병 중이었지만, 그의 자비행을 이해했다.

"어머니는 경찰이 됐으니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시는 신심 깊은 불자였지요. 할머니를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하였어요."

이 경사의 자비행은 모친이 돌아가신 후 더욱 빛을 발했다. "유혼을 받든다는 생각에 마음도 편했고 또 신명도 났습니다"고 말하는 그는 18년간 돌던 나 할머니가 숨을 거두자 손수 장례를 치르고 자신의 선산에 묻은 것은 물론, 신문배달로 생계를 꾸리던 소년가장 김모(당시 14세) 군에게 6년여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독거노인에 자식노릇

고아원·양로원 후원

"이젠 아내도 봉사도반"

도와 어엿한 사회 일꾼으로 길러냈다. 1993년부터는 비인가 복지시설인 광주시 동구 학동 천혜경로원과 화순군 춘양면 소향원에 쌀과 과일,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해 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광주 남구 방림동 전남 성노원에도 수시로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홀로 사는 노인들을 보살피고 있다.

"마음이 넉넉한 불자"라고 이 경



◇광주 방림동성노원에 살고 있는 노인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이승언 경사.

사를 평한 광주 해룡사 주지 해우 스님은 "이제 성노원에 살고 있는 30~40여 명의 노인들의 그의 발걸음을 기다릴 정도로 친자식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우 스님은 이 경사와 함께 성노원을 방문하는 등 그의 선행을 몸소 익혀 듣고 있다.

이 경사는 성노원에 매월 두 차례 정도 방문하고 있는데, 5~6만원 상당의 과일과 라면을 사들고 간다. 또 가을에는 아내 김민숙 씨(43세)와 함께 방문해 김치를 담궈주며 계획도 세우고 있다.

물론 그의 20여 년 선행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소외된 이웃에게는 자주 찾고 담소를 나누는 게 물질적인 보시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은 사라졌지만, '박봉에

무슨 봉사활동이나'는 주위의 편견을 깨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결혼하고 3~4년이 가장 어려웠다. 그러나 그의 처는 2년전 독거노인에게 전달할 요량으로 김치를 담그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든든한 조력자가 됐다. 그에게는 천군만마나 다름이 없다. 그에게 지원병은 또 있다. 바로 경찰 동료와 선배들이다.

"가까운 사람들과 자비행을 함께 하는 게 큰 힘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한 이 경사는 "지난 16일 발족한 경찰불교회 회원들과 삶의 현장에서 불법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10년 후 퇴직하면 불교노인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이승언 경사, 그의 자비행에 무궁골의 신심이 더욱 깊어질지 기대해 본다.

오종욱 기자 gobsoou@buddhapa.com

주제가 있는 법문

"텃밭 상추 놀라운 생명력 진정 위대한 자연의 힘"

오늘 아침 텃밭에 나갔는데 작은 새순들이 보여준 놀라운 생명력이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잘 것 없는 먹거리에서 지나지 않지만 생명이란 얼마나 위대한 자연의 힘이며 신비인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 동안 본의든 아니든,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살생능을 해 왔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나쁜 습성 때문에, 살아 있는 다른 생명을 죽여서 만든 먹거리가 몸에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넘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높이 삼아 즐기는 신종 게임이 나와 요즈음 어린아이들에게 유행입니다.

살생으로 무더어질 감성을 이대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는 없

재미삼아 살생놀이

생명경시 풍조 조장

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더욱 오만하고 방만한 모습으로 타락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 물고기를 방생하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꼭 무기를 들고 살생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내 이웃에게 또는 가족과 친구에게 건네는 눈짓, 손짓, 발짓 하나, 아니 말 한 마디까지도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겸손하지 못하다면 받는 이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이 곧 살생입니다.

<잡아함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진리대로 행하지도 않으며 서로 죽이고 해치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며 끝도 없는 죄악을 짓느니라."

살생에 관한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시다. 옛날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았습시다. 그런데 딸아이를 하나 낳고는 그만 그 부인이 죽고 말았습시다. 가난한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이 동네 저 동네 동냥짓을 얻어 먹이



정관스님

대구 조계사 주지
선재불교대학장

며 딸아이를 키웠습시다. 그러던 어느 날, 박복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기운 없이 자기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시다. 그런데 갑자기 길 옆 풀숲에서 황금색 거위 한 마리가 나타났습시다. "어보, 나는 죽은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이 어린것을 데리고 가난하게 사는 모습이 하도 딱해서 여라 대왕에게 부탁해 이렇게 황금 거위로 다시 환생했어. 내일부터 매일 나의 황금색 깃털을 하나씩 뽑아서 시장에 내다 팔면 당신은 곧 부자가 될 것이고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청처럼 거위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도 신기해 거위를 안고 집으로 와서는 매일 황금깃털을 하나씩 뽑아다가 시장에 내다 팔았습시다. 그렇게 해서 점점 부자가 된 이 농부는 욕심이 생겼습시다. 다음날 거위의 황금빛 깃털을 몽땅 뽑아버렸습시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눈이 부시던 황금빛 깃털이 모두 하얀색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위는 털이 몽땅 빠져 나가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시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거위의 깃털을 하나하나 심을 수도 없고, 죽은 거위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하얀색으로 변한 깃털을 누가 사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매일매일 도움을 주는 황금거위는 누구일까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혹 내가 그 아름답고 은혜로운 황금거위를 죽여 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는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는 이유를 만들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때입니다.

신행 캘린더

7월 4일(수)

■새만금생명학회 창립=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4월 11시 명동성당에서 종교계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생명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018)730-7775

7월 6일(금)

■현오스님 명상수련회=대전현행연구회는 8일까지 강원도 원주시 피라미트 명상원에서 명상수련회를 개최한다. 이튼과 실기 교육으로 진행될 이번 수련회에는 현오스님과 차차석, 임승택박사 등이 지도한다. (02)419-1253

■대원불교대 하계수련회=대원불교대학은 8일까지 2001년도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서울 후암동 본관에서 진행되는 수련회에는 해거스님의 특강과 최봉수, 장희욱, 김사업 박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02)773-9171

7월 7일(토)

■선운사도솔삼성지순례=금강정진회는 8일까지 지장도량 고택 선운사도솔삼성지순례를 실시한다. (051)632-0383

■사찰생태문화기행=맑고창기롭게는 8일까지 화순 운주사를 방문해 사찰생태문화기행을 실시한다. (02)672-5945

■금용불자회 수련대회=금용단불자연합회는 8일까지 상계동 도안사에서 회원 및 가족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수련대회를 갖는다. (011)9732-8972

■천태어린이 지도연수=천태종 구인사 어린이지도법사회는 8일까지 구인사 인공당 4.5층에서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위한 천태어린이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043)420-7267

7월 8일(일)

■경주시청불자회 순례법회=경주시청 공무원불자회는 경기도 청계사를 방문해 육법공양과 법문을 듣는 순례법회를 실시한다. (011)9029-3983

7월 9일(월)

■이동원교수 초청=강원불교상담개발원은 오후 2시 강남 봉은사 법당에서 이희영대 이동원 교수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 교수는 '한국 가족의 현주소'를 주제로 강연한다. (02)737-8803

7월 10일(화)

■이창경 특강=한국불교연구원은 오후 7시 서울 개포동 서울구도회 법당에서 동국대 권기중 교수의 '아람경 이야기' 특강을 실시한다. (02)3411-6167

생활속의 불교

혼자인 삶은 없다

우리는 함께 산다.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자연과 더불어 산다. 때로는 홀로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홀로 산다고 할 수 없다.

깊은 산중에 들어가 독살이를 한다고 해도 그는 사회 속에 있는 것이며 자연과 함께 있는 것이다.

삶이란 곧 함께 짓고 함께 하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고로 어느 누구에게나 다만 한 순간이라도, 산다고 하는 것은 곧 공생이요, 동조·호응·참여·분담·협조·협력·후원...의 관계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점을 잊고 산다. 때로는 아주 까맣게 잊고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투쟁하기까지 한다. 심지어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일방적이 될 때가 많다. 자기 마음이기 지나친 탓이다. 하지만 내가 나를 진정으로 아낀다면 그만큼 상대를 아껴줘야 나를 아낄 수 있게 된다. 대접 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야 내게 돌아오는 게 있는 법이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라면 모름지기 사섭법을 실천하라고 하셨다. 어디 수행자 뿐이라, 우리 모두는 '보시·애어·이행·동사'를 곧 삶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애어(愛語), 부드럽고 온화한 말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열린 마음에는 이해와 동조가 있다.

이행(利行),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저 협오

스러운 정치판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고로 상대의 처지를 살피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행과 이타행이 나올 것이다.

동사(同參), 마음과 마음이 포개져 동심원(同心圓)이 되어 행동을 같이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율력이 아니겠는가. 높직이 앉아서 상대대러 올라오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단하로 내려가 상대의 손을 잡을 때, 더 많은 이롭고 더 큰 나눔이 있게 된다.

보시(布施), 애어와 이행과 동사가 있는 곳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다. 어찌 재물을 주고 진리를 말해 주는 것만 보시라고 하랴. 함께 하고 함께 짓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보시이다. ■龍眼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1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들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9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무진정스님(본대학학장) · 박종(동산불교대교수) · 문율식(동국대교수) · 권탄권(동국대교수)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사상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권기중(동국대교수) · 최준식(동국대교수) · 윤형수(문화재단전문위원)
2년 교과목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유진스님(동국대교수)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임도스님(전포교원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원(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정명호(동국대교수) · 계환스님(동국대교수) · 김상원(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강희욱(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정규반 (100명) · 주간반 (50명) · 통신반 (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유리학과 (3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1년 6월15일~ 2001년 7월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4시(유리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입학일시 2001년 8월 4일(토) 오후5시(동산불교회관)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org
· 서울 : 보리각(조계사역)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와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불교 미술학교 · 우리 춤학과 개설

◆ 불교미술 개설 취지

불교미술에 대한 깊은이해와 함께 부처님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변상도를 직접 그려봄으로써 불보살님에 대한 신심과 예경을 표현하고, 1600년의 한국불교미술에 대한 종합적인 심미안을 체득, 전법과 포교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교과목

이론편	인도불교미술, 중국불교미술, 한국불교미술, 동남아불교미술, 불교사찰, 탭, 불상, 회화, 단청미술, 고려미술, 조선미술, 티벳미술, 현대불교미술, 법화변상도, 정도변상도, 화엄변상도
실기편	민화, 단청, 사천왕, 8부중, 팔상성도, 보살상, 부처상, 영산변상도, 정도변상도, 화엄변상도, 만다라

◆ 모집요강

- 입학일시 : 2001년 8월 4일(토) 오후5시
- 지원자격 : 불교미술을 통하여 불교신앙하고자 하는자
- 모집인원 : 정규반 (30명)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2시

◆ 불교춤학과 개설 취지

우리의 몸 속에 면면히 흐르는 민족의 춤가락을 신명나게 배워 전통의 맥을 잇고, 불교의 사상과 몸짓이 만나 아미타부처님께 춤 공양과 깨달음의 길로 다가가는 과정.

◆ 지도교수 및 내용

교과목	① 우리춤 기본(몽골리의 기본 토대 교육) ② 승무 기본 (영bell, 타령, 가락, 국거리 가락) ③ 작법 기본 (춤의 기본 시위와 비라리듬) ④ 복과 장단기본(복놀이와 우리 장단의 기본)
지도교수	이애주 (서울대 교수) (중요 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에는 보유자)

◆ 모집요강

- 입학일시 : 2001년 8월 4일(토) 오후 5시
- 모집인원 : 정규반 (30명)
- 강의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문의전화 : 02) 732-1206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